

보도시점 2025. 2. 14.(금) 회의 종료 후 배포 즉시

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, 이용가정 돌봄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

-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-

정부는 2.14.(금) 외국인력정책위원회(위원장: 방기선 국무조정실장)를 개최하여,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「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」을 확정했다.

< 제4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>

- 일 시 : '25.2.14.(금) 11:00~
- 장 소 : 정부서울청사 회의실(9층)-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(4층) 영상회의
- 안 건 : 「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안」

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·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. 이를 위해 '23.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-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, 4주간 직무교육(한국어·문화, 산업안전, 직무교육 등)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. '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,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, 이용가정(112가정 응답) 84%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. 또한 84%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 이용할 계획이고, 85%가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.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(37%)이 걱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가정(32%)보다 약간 많았다.

외국인 가사관리사(98명)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74%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서 계속 일하고 싶고, 82%가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. 항목별로는 이용자와의 관계(84%)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, 고용기간을 제외하고 임금, 근로시간,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.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은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(66%), 언어소통(14%) 등으로 나타났다.

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,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다. 이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, 타 E-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.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고,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,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. 최소근로시간(주 30시간) 보장, 임금수준(최저임금)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.

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,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,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.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‘서울형 가사서비스’*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*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% 이하 임산부·맞벌이·다자녀 가구 대상 가사서비스 및 비용지원('25년 약 1.1만 가구 지원, 예산소진시까지)

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,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.

이와 더불어,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. 가사관리사의 자격증, 경력,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 또한 중앙·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.

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“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,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”이라며, “'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한동희 (044-200-2371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렬 (044-200-2373)
<공동>	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서기관	김정탁 (044-202-714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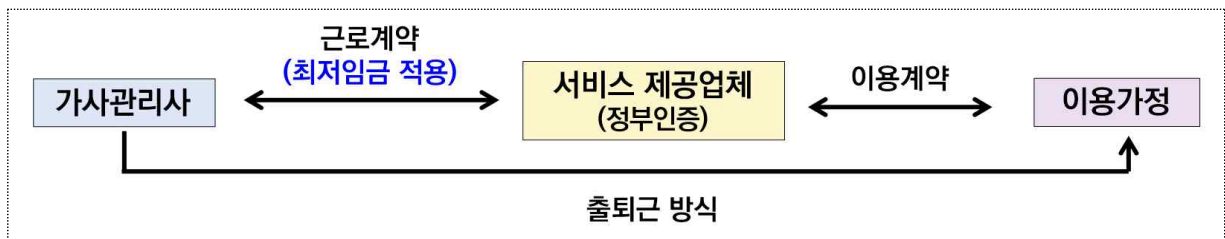


참고 1

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

□ 운영방식

- 「가사근로자법」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, 근로계약 체결
- 서비스 제공기간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방식으로 돌봄·가사 서비스 제공
 - 가사관리사는 육아 및 육아와 관련된 가사(청소·세탁 등), 동거가족에 대한 부수적 가사업무 수행 가능
 - 이용가정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3,700원* ('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시간당 13,940원) 지불



□ 추진 경과

-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* 입국('24.8.6.) 후 4주간 직무교육 실시
 - * 가사관리사 2명 이탈('24.9.15) 및 고용변동신고('24.9.26.), 강제출국('24.10.10.)
- 서울지역 내 이용가정 대상 돌봄·가사서비스 제공 실시('24.9.3~), '25.2월 현재 약 180여 가구에서 이용 중

❖ 이용가정(112가구), 가사관리사(98명)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('24.11월)

1. 이용가정

- (만족도)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중 84%, 보통 12%
 - 가사관리사 전문성 61%,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 76%, 향후 지속 이용 84%, 지인에게 추천 85%가 긍정
 - 서비스 비용 적정성은 긍정 37%, 부정 32%
- (기타) 저출산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긍정 47%, 부정 28%
 - 필리핀 외 희망국가에 베트남 21%, 인니 15%, 미얀마 10%, 캄보디아 7%, 네팔 6%, 영어권 5%, 스리랑카 5% 순 (모르겠음 17%, 없음 14%)

2. 가사관리사

- (연령.학력) 30대 85%, 20대 15%/ 고졸 36%, 대졸 64%(4년제 33%)
- (전반적 만족도) 한국에서 계속 근로희망 73%, 가사관리사로 만족 54%
 - * 만족/불만족(%): (임금) 27.6/15.3 (근로시간) 53.0/12.3 (휴게시간·장소) 47.0/15.3 (직무범위) 58.2/3.0 (이용자 관계) 83.6/0 (출퇴근) 29.6/26.5 (고용기간) 14.3/45.9
- (추천 여부) 80명(82%)은 좋은 근무환경, 타국대비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고국 지인에게 가사관리사를 추천한다고 응답
- (애로사항) 애로사항 1순위는 “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” 최다(65명)
 - * 1순위+2순위+3순위: (생활비) 65+18+9, (근무지 동선) 8+25+20, (의사소통) 14+19+17
- (이용자와의 고충) 해당사항 없음(35명), 언어소통 어려움(34명), 계약 외 추가 작업 요구(17명), 휴게시간 미보장(12명) 순